

한국가스공사, 5월3일까지 신임사장 공모

3월 주주총회에서 오강현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한 한국가스공사가 신임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한국가스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4월20일 사장 공모 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하고 5월3일까지 후보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했다.

비상임이사 중 3명, 전직사장 중 1명, 민간위원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6월1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공모자격은 경영, 경제, 가스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하며 최고경영자로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한 자이다.

가스공사 사장직은 오강현 전사장이 가스산업 구조개편 지연과 주무부인 산업자원부와의 갈등으로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현재 공석이다.

오강현 전사장이 공기업 사장으로는 이례적으로 주주들에 의해 해임된 만큼 후임 사장 선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화학저널 2005/04/22>